

김도연 감독 '술래' 권 작품상 영예

광주여성영화제 폐막... 단편부문 경쟁 15편 본선 특별상 '어떤 애와 다른 애...'·관객상 '공간의 끝'

제11회 광주여성영화제(집행위원장 김채희)가 지난 15일 폐막하며 6일간의 여정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광주극장, 롯데시네마 총장로, 광주여성영화제 온라인상영관에서 총 52편의 영화가 상영됐으며 윤단비, 임선에, 변영주 감독 등 총 33명의 감독들이 이번 영화제를 찾았다.

폐막식에서는 올해 처음 도입한 단편경쟁 부문에 대한 권 작품상, 권 특별상, 권 관객상 시상과 극장전 시상이 진행됐으며 권 단상작 3편이 폐막작으로 상영됐다.

그동안 전체 초청작으로만 진행되던 광주여성영화제는 올해 처음으로 단편부문 경쟁을 도입했다. 공모작 중에서 예선을 통과한 15편이 본선에 올랐으며, 지난 14일 상영 이후 본선 및 관객 심사가 진행됐다. 본선 심사는 '프랑스 여자'의 김희정 감독, '신기록'의 허지은 감독, 광주전남 여성단체연합 한윤희 대표가 맡았다. 관객상은 지난달 모집한 관객 심사단 30명이 직접 선정했다.

첫 권 작품상의 영예는 김도연 감독의 '술래'가 차지했다. 권 특별상에는 이현경 감독의 '어떤 애와 다른 애 그리고 레이'가, 권 관객상은 구정희 감독의 '공간의 끝'이 선정됐다.

권 작품상으로 선정된 '술래'는 낯선 환경에 홀로 놓여 외롭고 막막한 주인공

이 자신을 둘러싼 자그마한 온기들을 발견하며 성장하는 이야기다. 심사위원들은 "아무도 없는 막막한 속에서 몇 번이고 주저앉으면서도 다시 자기 자신을 끌어올리며 희미하게 들리는 누군가의 목소리를 발견하는 눈빛을 보며 현실에서 희망을 찾으려고 고군분투하고 있을 관객들에게 많은 위로를 주는 영화이기에 '술래'를 권 작품상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특별상으로 선정된 '어떤 애와 다른 애 그리고 레이'는 약자인 여성들이 그보다 더 약하고 버려진 존재들을 돌보는 모습을 그려낸 영화다. 심사위원들은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것 안에서 최선을 다하는 영화 속 주인공의 모습을 보며, 희망이란 바로 그런 것이 아닐까, 그런 것이어야 하지 않을까를 생각해볼 수 있는 계기를 선사하는 영화이기에 특별상에 선정했다"고 말했다.

권 관객상을 수상한 구정희 감독의 '공간의 끝'은 끊어질 기미 없는 예술계 내 성폭력에 관한 이야기를 다룬 작품이다. 관객들은 "기묘한 미장센 감각과 짜임새 있는 구조를 통해 영화적 이야기 방식에 대한 감독의 깊은 고민이 엿보여 이 작품을 선택했다"고 밝혔다.

한편, 심사위원들은 "영화 속 여성들은 힘든 삶 속에서 고군분투하면서도 기꺼이 손을 내밀어 희미한 서로의 목소리를 발



1 권 작품상을 수상한 영화 '술래' 2 권 특별상을 수상한 영화 '어떤 애와 다른 애 그리고 레이' 3 권 관객상을 수상한 영화 '공간의 끝' 스틸컷. /광주여성영화제 제공

견해나가고 있었다"며 "바닥에 주저앉아 괴로운 순간에도 올해 영화제의 슬로건인 'ZERO(再路)'처럼 다시 길을 찾아 나서려는 용기와 담대함을 잃지 않는 이들의 모습이 인상적이다. 갑작스레 당도한 전 세계적 위기와 혼란 속에서도 돌아보기를 멈추지 않고 여성들의 삶을 영화에 담아낸 모든 감독들에게 큰 응원의 박수

를 보낸다"고 말했다. 이번 영화제를 이끈 김채희 집행위원장은 "올해 광주여성영화제가 무사히 개최되고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함께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하다"며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준비하는 제12회 광주여성영화제도 기대해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오지현 기자

줄광대여, 다시 날아올라라

전문예술단체 풍물천지, 전라도 줄타기 복원 22일 우도농악담양전수관서 시연·학술대회

전문예술단체 풍물천지(대표 차현숙)가 담양 출신 이남치(본명 이경숙) 선생의 줄타기 흔적을 찾는 시연과 학술대회를 연다. 조선 8대 명창으로 알려진 이남치 선생은 줄을 날썰게 잘 탄다 해서 '날치'라는 예명을 가지게 됐다. 세타령으로 국창의 반열에 올랐다.

풍물천지는 오는 22일 오후 1시 담양군 봉산면에 위치한 우도농악담양전수관에서 위치한 '줄광대여 다시 날아올라라'라는 주제로 줄타기 시연 및 이남치 선생을 기리기 위한 줄타기 교육 과정 발표와 학술대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남치 선생 사후 많은 시간이 지난 지금, 그의 줄타기 재주를 그대로 재현하기는 어려움이 있으나, 현존하는 각 지역의 줄타기 재주들을 연구하고, 어린 줄광대들을 수련해 선생의 예술혼을 계승하는 전라도 줄타기의 원형을 찾아 체계화하려는 목적에 의미가 있다.

이남치 선생의 증손녀 이일수 선생

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이남치 선생의 줄타기를 연구했고, 줄광대 교육에는 국가무형문화재 58호 전통줄타기 보유자 김대군 선생과 전통줄타기보존회에서 도움을 주었다. 신명 나는 줄판 재현을 위해 전남도무형문화재 17호 김동연 선생이 우도농악담양전수관의 한 칸을 선뜻 내주었다.

전문예술단체 풍물천지는 줄타기 전수관을 지어 어린 줄광대들을 수련하며 전라도 줄타기 복원에 힘쓰고 있다.

전남문화관광재단의 지원으로 진행된 이번 사업의 성과를 널리 알릴 전라도 줄타기 시연회에는 김대군 선생의 강연과 김동연 선생의 전라도 국악 이야기 및 전통타악연구회 두드리의 축하 공연도 펼쳐질 예정이다.

풍물천지 차현숙 대표는 "올해 첫 삽을 뜬 전라도 줄타기 복원 사업을 내년에도 꾸준히 진행해 전라도 줄타기를 체계화하고, 전라도 줄타기가 전라도의 새로운 문화콘텐츠가 되도록 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연수 기자

희곡으로 듣는 5·18

광주연극협 낭독공연 21~22일 예술극장 통

(사한국연극협회 광주시지회가 오는 21~22일 예술극장 통에서 '5·18 낭독공연'을 선보인다. '5·18 낭독공연'은 5·18민주화운동 40주년을 기념하는 공연콘텐츠로, 사진 공모를 통해 선정된 6개의 신규 창작 희곡으로 구성됐다.

21일에는 광주연극배우협회가 최규화 작가의 '봄'을, 극단 청춘이 민선이 작가의 '말심년, 오월 전남 광주', 극단 Y가 신영은 작가의 '우리집'을 공연한다.

22일에는 극단 좋은친구들이 김이을 작가의 '넌 나에게 꽃을 심었다'를, 극단 아트컴퍼니원이 원광연 작가의 '잃어버린 나', 광주여성연극인연합회가 낭독하는 양태훈 작가의 '꿈'을 마지막으로 공연은 막을 내린다.

이번 공연은 추후 희곡집으로 출간돼



전문적으로 선보일 예정이다. 광주연극협회 원광연 회장은 "5·18민주화운동을 소재로 전에 없던 내용의 창작 희곡을 선정했다"며 "40주년을 맞아 이번 공연을 통해 그날의 아픔과 기억을 되새기는 시간을 가졌으면 한다"고 말했다. /오지현 기자

황혼의 로맨스 '늙은 부부 이야기'

내일 빛고을아트스페이스서 앵콜 상영

광주문화재단은 18일 저녁 7시 30분 빛고을아트스페이스 소공연장에서 지난 6월 상영된 연극 '늙은 부부 이야기'를 앵콜 상영한다.

올해 삭은스크린 마지막 상영작인 '늙은 부부 이야기'는 지난 2019년 예술의전당 자유소극장에서 로(老)맨틱 코미디로 선보였던 작품이다.

연극 '늙은 부부 이야기'는 2003년 초연 이후 꾸준히 재공연이 이뤄졌을 만큼 중·장년층에게 많은 사랑을 받았다. 주인공 날라리 할배 동만과 육쟁이 할배 점

순은 연극 속에서 첫사랑보다 달콤한 황혼의 끝사랑을 선보이며 빠르게 고령화되어 가는 우리 사회의 현실도 깊이 있게 조명한다.

출연하는 배우들의 색깔에 따라 각각 다른 케미가 발생하는 것도 보는 재미를 더한다. 초연 당시 39년생, 41년생이던 점순과 동만은 51년생, 53년생의 60대 후반 모습으로 재탄생했다. 동만 역에는 김명곤, 점순 역에는 차유경이 출연한다.

입장료는 무료이며 7세 이상이면 누구나 관람할 수 있다. 문화N티켓 홈페이지



연극 '늙은 부부 이야기'. /광주문화재단 제공

(www.culture.go.kr/ticket)에서 예약하면 직접 좌석을 선택할 수 있으며, 공연 상영 당일 0시부터 모바일 발권도 가

능하다. 예약은 선착순 100명만 가능하다. /오지현 기자

함께하는 100년 농협

아름다운 동행 서광주농협

농업인·고객·지역사회와 함께 농업의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고, 더불어 사는 밝은 미래를 만들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NH 크뱅크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크!

조회, 송금, 결제, 대출 그리고 금융비서까지!

전국 3000여 개 하나로마트에서 크! 바로 바로 확인까지 크!

NH가성비국민건강보험 2004 (무배당)

올바른 POINT UP 카드

국내·외 전 가맹점에서 무제한 포인트 적립
전 가맹점 최대%적립 + 생활밀착형 가맹점 추가 적립
전자금융 수수료 면제, 국제공항 라운지 무료이용

가성비를 갖춘 합리적 선택!

심장질환 + 뇌질환 2대 혈관질환 든든하게 준비하기!
진단비와 수술비를 동시에!

서광주농협에서 더 편리한 환전·해외송금을 맡기다

환전부터 해외송금까지 수수료 우대 적용

열심히 사는 사람들을 위한 따뜻한 금융

저신용자, 저소득자 서민(사업자 및 근로자)을 위한 대출, 개인신용등급에 따라 대출한도 차등 적용

본점 | 광주광역시 서구 죽봉대로 107(광천동) TEL. 062) 362-8400~6 FAX. 062) 362-8407

운암백산지점 062)529-5335~6	쌍촌지점 062)381-6551~2	유동지점 062)512-1984~5	기아지동차지점 062)385-4977~8	동운지점 062)528-2640~2
상무동지점 062)372-3741~2	빛고을로지점 062)531-1213~5	농성지점 062)361-4472~4	운암지점 062)527-3295~6	비틀지점 062)381-1971~2
용산지점 062)526-0222~3	화정지점 062)372-0421~3	동림지점 062)513-8521~3	유덕지점 062)373-3235~6	운천지점 062)371-2772~3
치평지점 062)381-8212~3	로컬푸드직매장 062)364-8400	유덕하나로마트 062)373-3235	하나로마트동림점 062)511-2901~3	

지역대표 금융기관 **서광주농협**